

유후다케



이전 분화활동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유후다케 산정의 경관

유후다케는 분출물의 조사에 의해 2000~2200년 전에 대규모의 분화활동이 있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. 당시 분화에서는 산정에 용암들이 형성되어, 화쇄류나 대량의 화산재가 분출했습니다. 이 분화 이후, 고문에 전해지는 유사시대의 분화는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, 최근 약 2000년간은 평온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

유후인의 매력

유후다케의 기슭으로 펼쳐지는 유후인 온천은 자연 환경과 주거 환경을 소중히 여기며 발전해 온 온천지입니다. 풍부한 자연과 아름다운 경관, 회계의 이벤트, 많고 미술관이나 공방 등 온천 보양지로서의 매력이 풍부하여, 연간 4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합니다.



이른 아침의 긴란코



유후다케 하이킹
아침 인개에 드러나는 유후다케

츠루미다케 가란다케



츠루미다케는 약 1200년 전에 분화했다고 추측하고 있는 활화산입니다. 현재도 산정 북쪽에 있는 아카이케 부근에서 분기나 오르고 있지만, 로프웨이로 쉽게 갈 수 있는 산정 부근에서는 화산활동의 영향이 없어 안전합니다.



가란다케는 츠루미다케의 북쪽에 있는 측화산으로서, 고문이나 분출물의 조사에 의해 서기 867년에 분화한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. 현재도 활발한 분기나 이화산의 활동을 볼 수 있습니다.

벳푸온천과 지옥 순회

화산의 혜택으로 얻을 수 있는 벳푸 온천의 총용출량은 전국에서 1위인 약 13만 컵로리터(1일 당). 이 대량의 온천이 「벳푸핫토」라고 불리는 개성 넘치는 온천탕이나, 기관으로 유명한 「지옥」을 형성하고 있습니다.

▲ 츠루미다케 ▲ 가란다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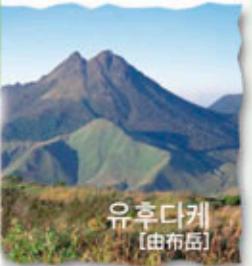
벳푸온천 연기

유후다케, 츠루미다케, 가란다케는, 기상청이 정한 「활화산」입니다. (기상청에서는 츠루미다케와 가란다케를 합체 「츠루미다케·가란다케」라고 부르고 있습니다.) 안전하게 화산의 혜택을 즐기실 수 있도록, 오이타현 및 현지의 시읍촌에서는 화산의 방재 대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. 화산 방재 맵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로 문의해 주십시오.

연락처 · 문의처 오이타현 토목 건축부 사방과 (직통) 전화097-537-2213

2006년 6월 발행

오이타의 활화산 (벳푸·유후인 지역)



하지마치 기요즈카산에서 본 경치



오이타현 토목 건축부 사방과

이 지도에서는, 유후다케, 츠루미다케, 가란다케 중 어느 하나가 만악 분화했을 때 화산탄(주막만한 크기의 분석)이 날아올 위험성이 있는 범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분화가 길어지면, 이 지도의 전 범위에 두께 10cm 이상의 화산재가 쌓이는 일도 예상됩니다.

확대도



가란다케

기호와 선의 의미



분화가 시작되었을 때 화산탄이 날아올 위험성이 있는 범위 (가란다케는 다른 2 지역보다 좁다)



중 요

① 유후다케는 약 2000년 이상, 츠루미다케와 가란다케는 약 1200년 이상 분화하고 있지 않습니다. 이 지도는, 평상시에도 유단하지 않기 위해 일일의 분화를 상정하여 작성한 것입니다.

② 갑자기 큰 분화가 시작되는 경우는 없습니다. 분화하기까지 피난할 시간은 충분히 있습니다.

③ 과거의 실적에 의해 유후다케, 츠루미다케, 가란다케가 동시에 분화하는 경우는,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.

0 1.0 2km